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유학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다. 간성의 경우 영동문화권에 있고 강릉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 강릉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 서적간행에서도 같은 성향을 띤 것으로 보인다. 삼척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 인접해 있어 경상도 지역의 활발한 출판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선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부터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정권이 안정되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서적의 간행이 주를 이루었다. 전통적으로 평평한 전답이 별로 없고, 화전에 의존했던 정선의 농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서적의 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에 편입된 평해나 울진의 경우에 서원이 번성하던 조선후기에 서적간행이 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과 연관된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울진의 지식문화는 폭넓은 지식인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운

## 제5절 개신교

### 1. 개요

조선의 개신교 전도는 1832년 7월 17일 네덜란드 선교회의 칼 구쯔라프(karl Gutzlaff) 선교사가 군산에 들어와 장산곶 근해 백령도 섬을 거쳐 군산항에서 약 30일가량을 체류하였고, 1866년 8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Thomas, Robert Jermain) [1840~1866]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먼호에 승선하여 입국했지만,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순교하는 바람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토머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 첫 순교자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기독교 사건만 하더라도 천주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정약용 형제들이 귀양을 가고 황사영이 순교를 당한 신유박해(1801) 사건을 비롯하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병인양요(1866) 사건들을 들 수 있다.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전래된 것은 1884년 9월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알렌 선교사가 조선 조정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공의(公醫) 신분으로 입국한 것이 최초이다. 고종황제의 윤허를 얻어 정식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내한한 미국 감리회 소속 아펜젤러 목사와 스크렌튼,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였다. 아펜젤러는 교육사업을, 스크렌튼은 의료사업을 하기로 하고 조선에 입국하였다. 결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조선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입국 이후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여러 루트를 타고 조선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침례교는 1889년 캐나다 말콤펜윅(Malcolm Fenwick)[1863~1935] 선교사 입국으로 시작되었고, 영국의 성공회는 1890년 코르프 주교의 입국으로, 1904년에는 안식교, 1907년에는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선교회, 1908년에는 구세군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조선의 초기 선교 당시에는 각종 교파의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선교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적인 중복 등 상당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선교 초기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대개 평양과 원산에 거점을 두고 전도를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면 평양, 원산지역에 일단 안착하여 선교 거점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울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개신교가 전래된 루트를 보면 크게 3개로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원주·강릉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삼척, 울진 쪽으로 내려온 루트가 있었다.<sup>309</sup> 또 하나는 서울에서 내륙지방인 대구 방향으로 내려와 안동을 거쳐 영덕, 울진 방향으로 뻗쳐온 경우이다. 세 번째는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간 선교사들이 울산, 경주를 경유하여 포항·영덕·울진 방향으로 올라온 루트였다.

## 2. 울진지역의 기독교 전래과정

울진지방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래한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출신 선교사로 파악되는데 침례교는 말콤펜윅 선교사가 조직한 대한기독교회 소속의 권서문서인 손필환 교사에 의해 전도가 시작되었고 감리교는 모리스(Charles David Morris)[1869~1927] 선교사와,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1872~1956]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309.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선교루트도 처음에는 두 방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원산지역을 선교사업 중심으로 삼은 것은 남 감리회였고 원주지방을 중심으로 삼은 것은 미 감리회였다.(김정래, 2011, 「강원도 영동지역 초기 기독교 선교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1890~1945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6쪽)



&lt;그림 54&gt; 토마스 로버트 저메인 선교사

출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lt;그림 55&gt; 말콤 펜윅 선교사

출처 : 한국컴퓨터선교회

울진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교회는 근남의 행곡침례교회로 1907년 11월 15일이다. 그다음이 1909년 1월 25일 창립된 울진감리교회이다. 교파별로 구분하면 침례교단을 시작으로 감리교단·장로교단·순복음 교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회별 연혁에 기록된 창립연도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구전되고 있는 창립연도보다 대개는 1~3년 정도 앞당겨 창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장로교단은 울진감리교회를 창립한 교인들이 장로교의 권사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진지역에 가장 먼저 진출한 교단으로 추정되며<sup>310</sup> 평해 감리교회 같은 경우, 공식 기록이 1911년 8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892년경에 이미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311</sup>

각 교회별 창립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추산하면 울진지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9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sup>312</sup>

이렇듯 초창기 교회들의 창립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6.25 한국전쟁을 맞으면서 기독교인들의 숙청을 우려해 교회들이 자료를 소실시켜버렸기 때문이다. 『강원도 영동지역 초기 기독교 선교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에는 ‘하디’ 선교사에 의해 동해안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시기를 1901년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울진지역의 개신교회는 총 80여 개로 감리교회 기독교 연합회가 결성되어있으며 정기적인 모임과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 등 연

310. 울진감리교회 연혁에 의하면 울진감리교회는 “울진에 거주하고있던 장로교인 최동순, 윤태현, 최무호, 권사 등이 창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감리교보다 먼저 장교교회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311. 평해교회 연혁에 삼달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00년도 이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느 미국 선교사가 평해지역을 방문하여 삼달리 담비마을에 머물면서 전도하였고 담비마을의 ‘김이회(金利會)’ 청년을 데리고 도미하여 7년간 신학 공부를 시켰다. 김이회는 7년 후 전도사가 되어 삼달마을에 와서 자기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 현 평해 감리교회의 전신이다. 김이회는 1872년생으로 도미 당시 20세 정도였으므로 미국 선교사가 온 연도는 1892년경으로 추산된다. 또한 7년 후 김이회가 귀국한 것은 1899년경으로 추산된다.

312. 김정래, 2011, 앞 논문에서도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하디’ 선교사이며, 그 시기는 1901년이라고 기록하였다.

합행사도 하고 있다. 교단별 교회 수는 아래와 같다.

<표 165> 개신교단별 교회 수

교단별	계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군부대교회	기도원	기타
교회 수	83	18	22	35	4	2	2	

출처 : 울진군기독교연합회

### 3. 울진지역 기독교와 3·1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세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울진에서도 4월 11일 매화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4월 12일은 울진읍장에서, 4월 13일은 북면 흥부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4월 11일 매화 만세운동 때 주동자 청년들이 검거되었고 일경들의 강력한 예비검속으로 4월 12일 울진읍 장날에 예정되었던 만세운동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4월 13일은 예정대로 흥부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은 기독교인들과 만흥학교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일경의 눈을 피해 은밀히 계획하고 만세 선언문과 태극기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만들었다. 울진지역에 독립선언문과 공약삼장이 전달된 것은 두 가지 경로였는데 서울 파고다 공원 만세운동 현장에서 유학생 ‘장식’이 독립선언문을 숨겨온 것과 북면 지장감리교회 전도사였던 전병겸이 서울의 감리교회 전도사로 있던 외조부 홍규익으로부터 전해 받은 독립선언서와 공약삼장이었다.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청년들은 울진의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였고 교회 계통으로는 울진 감리교회 목사 이동식(李東湜), 전도사 황병호(黃炳鎬), 권사 최동순(崔東舜) 등이 청년들과 합세하여 거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전병겸 전도사가 홍규익 외조부로부터 전달받은 독립선언문과 공약삼장에는 ‘만세운동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주동하라’라는 메모가 함께 전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매화와 흥부장터 만세운동에 사용된 태극기는 지장골 감리교회에서 야밤을 이용해 만들었고 매화 만흥학교까지 밤새워 운반하였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 16인이 기독교인 바와 같이 울진의 기독교인들도 만세운동의 중심에서 용기 있게 참여하였다.

울진의 만세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매화만세공원에서 매년 3월 1일 만세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북면 흥부만세 기념행사도 매년 4월 13일 거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56> 제88주년 4.13 흥부독립만세운동 추념식

## 4. 교단별 초기 전래사

### 1) 침례교

침례교 창시자는 말콤 펜윅(Malcom c. fenwick) 선교사다. 그는 캐나다 선교사였는데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89년 12월 8일로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나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보다 4년 뒤에 조선으로 입국했다. 펜윅 선교사는 28살의 젊은 나이로 내한하여 서울에서 10개월 동안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황해도에 가서 어학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한국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4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해 오다가 1893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당시 세계적인 종교지도자였던 보스턴의 클라렌튼가(街) 침례교회 담임목사였던 고든(A.J. Gorden)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 신학 공부를 한 뒤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으로 와서 함경도 원산에 선교본부를 정하고 전도한 것이 한국 침례교의 최초의 본부였다. 그는 1906년 충남 강경에서 31개 교회가 모여 '대한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창설하고 초대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 이것이 침례교단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울진지역에 침례교가 전래된 말콤펜윅 선교사의 영향을 입은 손필환 교사가 1907년 근남면 행곡마을을 방문하여 개인 가옥을 빌려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교회가 현재 행곡 침례교회로 발전했다. 또한 행곡교회의 교세 확장으로 기성면 구산리에 구산 침례교회, 죽변면 화성리 용장동에 용장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림 57> 행곡교회[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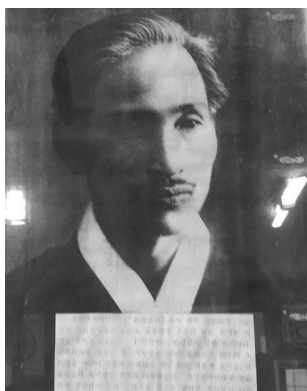
펜워 선교사는 한국에서 월남 이상재, 윤치호 등과 친밀한 교분을 두면서 성경책도 번역하여 출간하고 직접 과수원과 축산농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일본이 조선의 모든 부분에서 강점하던 시기라 일본 경찰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조선 사람보다 오히려 반일 운동을 하면서 전도에 힘썼다. 펜워 선교사는 조선 이름으로 편위익으로 불리며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였다. 그는 1935년 12월 6일 72세를 일기로 원산에서 별세하였다.

울진지역에 침례교를 전파한 손필환 교사는 1905년 충남 공주에서 교역자 양성목적으로 개교한 성서신학원을 졸업하고 1906년 교단의 구역설정과 함께 조직된 권서문서선교회 교사로 울진과 통천지역을 맡았다. 손필환 교사는 1907년경 울진지역으로 들어와 행곡마을 방문해 전도를 시작하였다. 차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행곡리 전성수의 협력으로 남규백의 초당집을 빌려 1907년 11월 15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 그 후 19010년 작은 초가 한 채를 짓고 예배를 드리다가 1934년 울진읍성의 병영건물로 사용하던 목조 와가 건물을 매입하여 재조립하였다. 이 건물의 대들보에 묵서로 쓰인 상량문을 보면 가경(嘉慶) 14년<sup>313</sup>으로 기록되어있다.

건축의 형태는 전통 한옥형 목조 8작 지붕이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동서 장방형으로 된 집이다, 건물 내부의 바닥은 목재 마룻바닥이며 연등 천정을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보존 상

313. 가경(嘉慶)이란 연호는 1387~1389년까지 3년간 사용한 일본(日本) 연호이며, 청(淸)에서 1796~1820년까지 24년간 사용한 연호이다. 본 건물의 가경(嘉慶) 14년은 1810년이다

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2006년 12월 4일 근대 문화유산 제286호로 지정되었다.<sup>314</sup>



<그림 58> 전치규 목사

행곡교회는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성지순례지이며 동해안의 예루살렘교회로 불리고 있다. 행곡교회가 예루살렘교회로 불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 침례교회 중 3명의 순교자가 배출된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순교자는 전치규 목사로서 그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 32명이 원산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함흥 교도소에 이감되어 모진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1944년 2월 13일 함흥 형무소에서 66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sup>315</sup>

두 번째 순교자는 전병무 목사로서 6·25 당시 행곡교회를 담임하면서 빨치산에 의해 1949년 10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이때가 62세였다. 세 번째 순교자는 남석천 성도로 행곡교회 청년회장이다. 당시 전병무 목사와 함께 빨치산에게 붙잡혀 마을 뒤편에 있는 남석천의 자택 마당에서 총살을 당했다, 남석천 청년은 당시 26세로 결혼을 하여 아기까지 있었다. 남석천 회장의 부인은 빨치산들의 무자비한 살상을 보고 놀라서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도망쳤지만, 빨치산은 도망치는 부인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부인이 총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행곡교회는 우리나라 침례교회 중 남북한 합쳐 6번째로 이른 시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이며 전통 한옥 건물 자체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방문하고 있다.

울진지역에서 6·25 이전에 창립된 침례교회는 1907년에 창립된 행곡교회를 필두로 1909년 죽변면 화성리의 용장교회와 기성면 구산리의 구산교회가 창립되었으며 6.25 직전인 1948년에 매화면 기양리의 기양교회, 1949년 근남면의 근남교회 등 모두 5개 교회가 창립되었다. 그 후 여러 지역에서 침례교회가 세워져 현재 18개 교회로 확장되었다.

## 2) 감리교

감리교는 영국의 존 웨슬리(John Wesley)[1703~1791]에 의해 창시되었다. 웨슬리는 1703년 성공회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모친 수산나 사이에서 첫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되었으나 첫 목회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있다가 우연히 모리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 체험을 한 후 목회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감리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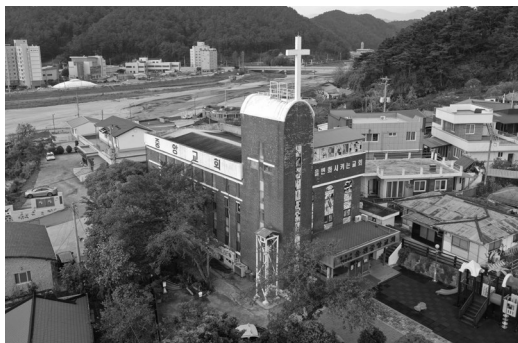
314. 김용해, 1964, 『대한기독교 침례사』, 성령사, 15쪽

315. 전치규 목사는 1878년 1월 근남면 행곡리 전달용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26년 감목(監牧)으로 취임했고 1941년 6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조선에 감리교회가 전래된 것은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와 스크렌톤이 조선에 입국한 이래 전국적으로 감리교회들이 창립되기 시작하였고, 울진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에 의해 감리교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구 『울진군지』 종교 편 기록에 의하면, 울진지역에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개신교로는 1908년(융희 2) 죽변면 후정리에 미감리교회 예배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316</sup> 당시 최광호(崔光鎬)·전학옥(田鶴鉦)·주병준(朱秉準) 등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 부흥을 위해 애써다가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서간도로 이주하고 예배당은 폐쇄되었다.

그 후 장진표 권사가 주축이 되어 북면 고목리에 예배당을 설치하고 선교에 힘을 썼는데 장진표 권사마저 서간도로 이주하여 폐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울진읍 내리에도 감리교회가 이미 전도된 시기였다. 울진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울진 감리교회는 모리스 선교사의<sup>317</sup> 전도로 1908년경 전도가 시작되었으며 신자들을 규합하고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1909년 1월 25일이었다. 이 시기는 평해 감리교회의 전신인 삼달교회도 이미 창립된 상황이었다. 울진감리교회는 울진 읍내리에 소재하며 울진지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아울러 울진지방에서 열리는 집회 및 교회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기도 했다.



<그림 59> 울진중앙감리교회



<그림 60> 평해감리교회

울진 감리교회가 처음 창립되고도 약 5년 동안 담임목사가 없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하여 원주·강릉·삼척·울진을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순행하던 목사에 의해 운영되다가, 1914년 강릉 감리교회에서 시무하던 이동식 목사가 울진감리교회 전임목사로 처음 파송되었다.

316. 1900년 선교구역협정을 통해 원산지역은 남감리회로 강원도 동남부지역인 원주, 강릉, 영월, 삼척, 울진지역을 이양받아 선교를 담당하였다.(윤춘병, 1996, 『대한기독교 침례사』, 신앙과 지성사, 54쪽)

317. 모리스(Charles David Morris) 선교사(1868-1927)는 한국명 “모리스”로 불렸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1900년 미 감리회 선교사로 목사안수를 받고 한국에 왔다.

이동식 목사는 평양지역에서 월남한 목사로 이동식 목사가 파송된 이후 울진교회의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울진 감리교회보다 이른 시기에 평해읍에도 감리교가 전래되어 삼달리에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1911년 8월 평해리 현재의 위치에 옮겼다고 한다. 이어서 1910년 기성감리교회와 매화 영광 감리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1911년 사동교회, 1915년 부구감리교회가 창립되어 6·25 전쟁 이전에 창립된 감리교회는 6개 교회에 이른다.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의 탄압으로 교회들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부터 울진 전역에 감리교회들이 활기차게 전도되었다. 2020년 5월 현재 울진지역에는 22개의 감리교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 3) 장로교

장로교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칼빈으로 그는 16세기 중엽 장로회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이후 장로교를 국교회로 지정하여 잉글랜드와 미국으로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1706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노회가 조직되고 1789년 최초로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었다. 18세기 이후 미국 장로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해외선교에 앞장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한국에 선교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907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창설되고 1912년에 총회가 창설되었다.<sup>318</sup>

영덕군에 장로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지품면의 낙평교회가 1901년으로 가장 빠른데 울진지역에 장로교가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50여 년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인근 지역이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선교지 분할 정책’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당시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가, 강원도, 황해도지역은 감리교가 선교구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인 영덕은 1900년대 초부터 장로교가 활발히 선교를 시작하였고 강원도 지역인 울진에는<sup>319</sup> 감리교가 세워지고 있었다.<sup>320</sup> 울진군은 당시 강원도 지역으로 장로교회가 없었으므로 경안노회에서 울진군을 선교지로 포함하여 장로교회를 개척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1970년 12월 경안노회 일부와 경동노회 일부를 포함하여 동해노회로 분립할 때 울진군에 장로교회를 개척도록 위임받았는데 그 후로 울진군에 장로교회가 많이 개척되었다.<sup>321</sup> 울진군에는 울진읍의 「제일장로교회」가 1954년에 설립된 것이 가장 최초라고

318. 장로교는 츠빙글리와 존 칼빈에 의해 확립된 장로주의를 토대로 조직된 교회로 1884년 9월 20일 미국 정로교선교사 알렌(H.G.Allen) 의사가 선교문을 열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목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제물포에 입항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이 시작이었다. 영목회, 2003, 『영덕군 기독교 100년사』

319.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1963년에 경상북도로 편입되었다.

320. 영목회, 2003, 위 책

321. 영목회, 2003, 위 책

보이며 1970년 이후 많은 장로교회가 설립되어 현재 장로교단의 교회는 35개 교회로 확장되었고 교단별로는 합동 교단이 17개 교회로 가장 많다.

#### 4) 순복음교

순복음 교회의 역사는 1928년 미국의 여자 선교사 럼시(Mary C. Rumsey)가 내한하여 선교하면서 시작되어 1953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창립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세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1953년 하나님의 성회로 출발한 이후 1957년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측과 기존의 오순절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했다가 1972년 다시 합동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1981년 타 교단에서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가 일어나 분열 양상을 보였다. 결국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탈퇴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를 만들었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 오순절 운동에 대한 오해와 이단 시비들이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1991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결의하였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도 가입하였다.

울진지역의 순복음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매우 늦은 시기에 전래되었으며 울진 읍내리의 갈릴리 큰 소망교회가 1991년에 처음 창립된 이래 현재 4개의 교회로 늘어났다.

### 5. 마무리 글

울진지역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서언에서 언급하였지만, 기록상 창립연도보다 실지 전래된 연도는 모두 1~3년 정도 이른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전도시기와 창립시기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래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회는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정식으로 창립예배를 드린 시점을 창립일로 잡는 경우가 많아 실지 선교사가 들어와 전도가 시작된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더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군들의 숙청을 우려하여 교회의 자료들을 모두 소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기 창립교회들은 창립연도들이 대부분 정확하지 않다.

울진지역에 가장 먼저 전래된 교단은 장로교단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울진지역 감리교회 중 가장 먼저 창립된 울진 감리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장로교의 권사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감리교단보다 장로교가 먼저 전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울진은 강원도에 속해 있었으므로 선교지 분할 정책 때 장로교가 경상도 지역을 분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교지 분할 정책을 살펴보면 초기 한국선교는 각국의 선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선교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여러 교단이 중복되어 전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선교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92년 6월 미북 감리회와 북 장로회 선교부 대표들이 모여 몇 가지

선교원칙을 정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905년 장로교·감리교 연합 공의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으로 선교지 지역 분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후 1909년 9월 6일과 7일 양일간 모인 ‘지역분담 협정위원회’에서 주한 미북장로교·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등 4개 선교부와 미 북감리회, 남 감리회 선교부 등 2개 선교부 등 6개 선교부가 참여하여 선교지 분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을 예양협정(禮讓協定)이라 하는데 이때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안동을 위시하여 경상도 일부를, 미 북감리교 선교부는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울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장로교회들이 경상도 지역인 영덕지방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울진지역에는 현재 울진 기독교연합에 가입된 83개의 교회가 있으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와 교단들도 있다.

&lt;표 166&gt; 울진군 내 개신교회 현황(2020. 5. 31. 현재)

교단		교회명	목회자	주소	설립일 <sup>322</sup>
감리교		구산중앙교회	윤원희 목사	기성면 구산봉산로125	1992.10.22
		금천교회	조상철 목사	온정면 금천4길39-26	1960.10.06
		기성교회	최영교 목사	기성면 척산2길68-4	1910.04.15
		다천교회	권혁정 전도사	기성면 정다리로498-12	1960.09.15
		덕신교회	진재용 목사	매화면 동해대로2871-10	1975.03.14
		망양교회	최철순 목사	기성면 망양로87-34	1992.05.15
		백암온천교회	오수남 목사	온정면 소태3길55	1955.10.05
		봉평제일교회	황성욱 목사	죽변면 골장길193	2002.10.17
		부구교회	김시석 목사	북면 부구2길5-8	1915.07.15
		사계교회	이주부 목사	북면 사계2길112-6	1984.10.16
		사동교회	전영섭 목사	기성면 사동1길41-1	1911.10.03
		선미교회	박현준 목사	온정면 온매로102	1955.10.13
		영광교회	백남호 목사	원남면 매화1길32	1910.08.
		울진남부교회	최원수 목사	울진읍 토일1길70-4	1990.01.09
		울진중앙교회	우병남 목사	울진읍 울진중앙로141-23	1909.01.25
		월송교회	서종필 목사	평해읍 월송길139	1956.07.01
		죽변감리교회	이승환 목사	죽변면 죽변북로58	1951.05.20
		평해교회	이상규 목사	평해읍 평해7길31	1908.08.15
		평화교회	장성만 목사	평해읍 울진대계로603-12	1993.10.23
		해동교회	임석재 목사	평해읍 직고개길49	1985.12.09
		황보교회	최정현 목사	기성면 황보4길3	1976.09.19
		후포교회	박용성 목사	후포면 후포로101	1925.10.15
장로교	개신	북면장로교회	이승주 목사	북면 부구1길7	1986.05.
	고려개혁	새빛교회	차수영 목사	울진읍 현내항길338	2011.05.01
	고신	북면교회	조경수 목사	북면 울진북로2141	1986.04.13
	대신	성내교회	이희만 목사	죽변면 하죽로1592-6	2012.03.
	백석	구고동교회	손희수 목사	근남면 왕피천로626-3	1983.03.20
	백석	울진선교교회	이태학 목사	울진읍 강변로14	1997.04.17

322. 개신교 교회 설립일은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편, 2008, 『내일을 위하여』-울진기독교선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기독교 한국 침례회편, 2007, 『2007, 역사연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울진지방 연혁』

위 자료에서 누락된 교회의 경우는 개신교 교회 담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설립일을 확인 정리하였다.



교단		교 회 명	목 회 자	주 소	설립일 <sup>322</sup>
장로교	백석	해뜨는교회	김창기 목사	북면 석호1길25	1981.10.05
	백석	행복한은진교회	심상진 목사	매화면 갈면대평길311-60	2016.06.04
	통합	구산제일교회	심수현 목사	기성면 기성로117-16	2006.12.17
	통합	덕구교회	이현우 목사	북면 덕구온천로690	1972.03.07
	통합	부구중앙교회	김창희 목사	북면 흥부길29-4	1982.11.14
	통합	서면제일교회	김옥분 목사	금강송면 삼근2길12	1984.04.10
	통합	울진제일교회	김항신 목사	울진읍 울진북로447-18	1954.02.17
	통합	울진한빛교회	김은영 목사	울진읍 월변3길42	2015.08.23
	통합	죽변제일교회	김현국 목사	죽변면 죽변2길47	1973.11.03
	통합	평해제일교회	최병원 목사	평해읍 평해로26길	1979.06.03
	통합	후포중앙교회	김원주 목사	후포면 삼울3길56	1977.06.05
	합동	광염교회	고성진 목사	후포면 울진대계로79	1987.09.27
	합동	금음교회	임우빈 목사	후포면 쇠골1길71	1988.03.
	합동	금음제일교회	최운경 목사	후포면 만산길56	1992.02.02
	합동	기성제일교회	이문교 목사	기성면 기성본길55	1990.01.23
	합동	길교회	임채훈 목사	후포면 정실2길18	1997.12.21
	합동	봉평중앙교회	최종도 목사	죽변면 골장길209-13	1982.04.03
	합동	산포교회	김신전 목사	근남면 산포리82-2	1983.10.20
	합동	온누리교회	권혁준 목사	울진읍 읍내7길7	1976.07.25
	합동	울진벤엘교회	강성봉 목사	울진읍 새마실1길20	1987.07.27
	합동	울진성산교회	임영조 목사	기성면 구산봉산로127-34	2001.11.13
	합동	원남교회	서정율 목사	매화면 매화 매실1길224	1987.05.02
	합동	월송제일교회	남종률 목사	평해읍 월송5길29	1994.03.
	합동	죽변장로교회	조한덕 목사	죽변면 죽변북로43-22	1987.
	합동	함께하는교회	안선희 목사	기성면 망양로167-1	1992.06.05
	합동	후포장로교회	이명철 목사	후포면 후포8길21	2007.04.19
	합동	후포제일교회	정봉영 목사	후포면 후포6길4-7	1975.08.01
	합동중앙	호산나교회	장대근 목사	죽변면 하죽로1464-36	1994.06.12
	합신	후포동산교회	최승근 목사	후포면 중밤터1길61-1	1999.11.11
침례교		구산교회	임길수 목사	기성면 구산길113-4	1909.06.07
		근남교회	김진규 목사	근남면 노음4길14-9	1949.09.30
		금강송교회	박종태 목사	금강송면 삼근1길23	1956.11.28
		기양교회	홍성익 목사	매화면 기양영양길31-37	1948.04.10

교단	교회명	목회자	주소	설립일 <sup>322</sup>
침례교	매화침례교회	김광석 목사	매화면 매화2길24-18	1968.06.17
	방주교회	조관형 목사	울진읍 새마실1길34 송림아파트303호	2010.10.15
	빛으로교회	장동업 목사	북면 흥부길67-42	2008.02.18
	사랑의교회	이성호 목사	울진읍 연호로23	2010.05.21
	산돌교회	이학규 목사	울진읍 새마실5길16	1981.06.28
	성류교회	주순희 목사	근남면 뒷들길76-12	1970.10.01
	신림교회	강충규 목사	울진읍 대흥신림로705-4	1952.01.16
	영동교회	박노익 목사	울진읍 현내항길80	1992.08.06
	용장교회	최계환 목사	죽변면 죽변북로65 삼우주택 A동201호	1909.
	울진교회	오세홍 목사	울진읍 향교로12	1955.05.08
	죽변침례교회	고숙환 목사	죽변면 죽변7길12-11	1951.08.05
	진복중앙교회	이복태 목사	근남면 망양정로533	1974.05.
	행곡교회	김의철 목사	근남면 행곡리천연1길13	1907.11.15
	후포비전교회	한명수 목사	후포면 후포삼울로59	2011.05.11
순복음	갈릴리큰소망교회	김영준 목사	울진읍 말루길8-9	1991.06.23
	동해안순복음교회	도사현 목사	매화면 망양정로90	1994.12.03
	삼당순복음교회	김동욱 목사	북면 하당1길51	2013.01.24
	순복음성산교회	허만운 목사	후포면 후포3길91-23	2007.05.
군인	매화해군교회	최종도 목사	매화면 매화리 해군부대	
	해성교회	이학규 목사	근남면 구산리1대대	
기도원	천국길기도원	박진수 장로	죽변면 골장길76	1988.05.
	울진기도원	조영미 목사	죽변면 성내리116-29	2017.05.29

김성준